

부부의 갈등대처방법이 부인의 결혼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Wives' and Husbands' Conflict Coping Styles and Marital Adaptation

이영숙* · 박경란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Yeong Sug Yi* · Kyung Rhan Park
Kunsan Nat'l University · Inj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ouples' conflict coping styles upon wives' marital adapt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often-used conflict coping style was 'compromise', and the least-used was 'smoothing over,' in both cases of husbands and wives.

Seco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compromise,' 'integration,' and 'smoothing over' between the cases of husbands and wives. For example, wives used 'compromise' and 'integration' more frequently than husbands, but 'smoothing over' was more often used by husbands.

Third,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hat influenced wives'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was husbands' conflict coping styles. Their own conflict coping styles and demographic variables came as the next.

Fourth, the only conflict coping style of wives that influenced the stress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was 'dominance'. On husbands' side, 'compromise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dominance (marital satisfaction)' functioned as important variables.

Key Words : conflict coping styles, stress, marital satisfaction

I. 서론

갈등은 개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이 개인의 관심사나 욕구, 개인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좌절시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사람들 간에는 갈등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부부는 그 어떤 관계의 사람들보다도 자주 접촉하고 긴밀하게 공유하는 경험이 많고(Noller & Fitzpatrick, 1993), 자신을 더 많이 노출하고 상호의존하기(Dominian, 1995) 때문에 더 빈번하게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부갈등이 결혼생활의 안정성 및 붕괴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여성들이 과거의 여성들에 비해 부부간의 친밀감과 평등성, 상호 독립적인 관

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인데 만약 배우자와의 갈등관계에서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비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결혼생활을 끝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부이혼 및 해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통계청, 2003) 부부갈등의 대처여부가 결혼생활적응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결혼생활에서 갈등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부부가 갈등을 인식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갈등은 개인의 성장 및 관계를 견고히 하는 결정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Retzinger(1991)의 지적과 같이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부관계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당면 문제이기 보다는 관계의 통합 문제이며, 관계를 통합하기 위한 주요 과업중의 하나는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므로(Gottman, 1994), 어떤 유형의 갈등대처방법이 결혼생활의 적응과 관련되는가를 확인하

* Corresponding author: Yeong Sug Yi
Tel: (063) 469-4623, Fax: (063) 469-4620
E-mail: ysyi@kunsan.ac.kr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적응에 기능적 또는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갈등대처방법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부인과 남편의 갈등대처방법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어떤 갈등대처방법이 부인의 결혼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관련 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부인의 지각적 측면에서 결혼생활적응 즉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결혼생활에서 갈등(고현선·지금수, 1995) 및 스트레스(김명준 등, 2003)를 더 많이 느끼며, 결혼만족도(오선주, 2002)가 더 낮으며, 이혼제안(김명준 등, 2003)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연구들(강학중·유영주, 2003; 조유리·김경신, 2000)과는 달리 부인의 지각 면에서 부인의 갈등대처방법과 남편의 갈등대처방법을 조사하였다. 개인상호관계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사고나 행동에 대한 개인자신의 지각보다는 그것에 대한 상대방의 해석이나 평가이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1). 따라서 갈등 상황을 다루는 배우자의 대처방법을 부인이 지각하는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셋째, 갈등대처방법은 부부관계에서 경쟁되는 두 목표, 즉 자기욕구만족과 상대방욕구배려 측면에서 조사되었다. 부부들은 그들의 관계를 공평함(equalitarianism)과 공유함(sharing)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결혼생활의 적응이 높기(Baucom 등, 1996) 때문이다.

II. 관련문헌의 고찰

1. 부인이 지각한 부부의 갈등대처방법의 차이

1) 갈등대처방법의 개념 및 유형

갈등대처방법이란 갈등을 처리하기 위한 방식과 활동을 말하며, 상대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갈등관리방법이 존재한다(김양희, 1993). 이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Berg-Cross(1997)는 대처유형에는 적응적·부적응적 대처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적응적 대처유형은 문제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반면, 부적응적 대처유형은 보통 감정에 초점을 두는 행동들 즉 적대적인 대항, 감정폭발, 또는 정서적 지지를 구하는 것 등으로 접근한다. Vuchinich(1987)는 가족갈등이 반드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족은 전형적으로 이를 종결시키기 위해 복종, 위협, 무관심, 철회의 네 가지 방

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부부의 경우, 강학중과 유영주(2003)는 부부가 싸울 때 사용하는 대처행동은 협상(감정적 협상, 인지적 협상), 심리적 공격(약한 심리적 공격, 심한 심리적 공격), 신체적 공격(약한 신체적 공격, 심한 신체적 공격)으로 구분된다고 하였으며, 이를 부인과 남편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고현선과 지금수(1995)는 남편이 인지하는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은 양보형, 소극적형, 외면형, 공격형, 비난형으로, 부인이 인지하는 남편의 갈등대처유형은 이성형, 소극적형, 유아형, 공격형, 변덕형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한편 Berko 등(1997)은 갈등을 대처하는 유형에는 자신의 욕구를 고려하는 정도와 상대방의 욕구를 배려하는 정도에 따라 회피형, 타협형, 덮어주기형, 지배형, 통합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상대방을 너무 많이 고려하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반대로 자신만을 고려하면 원하는 것은 얻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다 맞는 전략이란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인 갈등관계에서 개인자신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부-부 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 지속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계이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가의 측면에서 구분한 Berko 등(1997)의 갈등대처방법을 적용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2) 부부의 갈등대처방법의 차이

관련학자들에 따르면 갈등대처방식에는 부부간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남자와 여자는 사회화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인식하고 그에 반응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고 한다. 즉 남성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립성과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상호의존, 협동적인 분배, 친밀, 보호를 원하는 이러한 차이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갈등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다루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Berko 등(1997)에 의하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갈등해결책을 찾아내고 의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며, 또한 대처방법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통합전략, 덮어주기와 타협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남성들은 갈등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다루려는 지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와 유사하게 Dominian(1995)도 부부갈등에서 여성들은 적극 참여하려고 애쓰는 반면 남성들은 피하려 한다고 하였다. 즉 여성들은 의사전달 과정에 유의하고 상호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위기에 반응하는 반면, 남성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반응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부간 문제해결에서 부인들은 남편보다 해결방안을 더 많이 모색하고(이미영,

1994), 더 요구적이고(Heavy 등, 1993), 더 적극적이며 주도적인(최정혜, 2002; Thompson & Walker, 1991) 경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Klinetob와 Smith(1996)는 부인의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에는 부인은 요구하고 남편은 움츠리는 반면, 남편의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에는 남편은 요구하고 부인은 움츠리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부부 가운데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배우자는 움츠리는 경향이이며, 불리한 배우자는 변화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혼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현상유지가 유리한 남성들이 움츠리는 태도를 더 많이 보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최혜경과 노치영(1994)은 기혼남성들은 사회에서나 가족 안에서 남성에게는 권위와 힘이 주어지므로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권위 또는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 배우자를 움직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들은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힘이 부족하므로 방어적이 되거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문제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간 차이의 내용들은 부-부 본인의 입장에서 고찰된 것이며, 이와는 달리 배우자의 지각 측면에서 조사한 고현선과 지금수(1995)의 연구에서는 남편들은 부인이 갈등 시에 소극적이거나 외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고(68.8%) 공격형이거나 비난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적어서 부부갈등 시에 부인들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인 자신이 평가하는 것과 상대방이 평가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2. 부인이 지각한 결혼생활적응

1) 배경변인과 결혼생활적응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선행연구 간에 연구결과가 완전하게 일치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부부의 학력, 경제수준 및 결혼기간은 부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주부의 결혼만족도의 관련변수를 고찰한 이정연(1987)은 높은 학력과 높은 경제수준은 대체로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최근의 연구 역시 부인(강학중·유영주, 2003)과 남편(김명준 등, 2003)의 학력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학력,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더 낮고(최선희, 2002), 사회관계 망의 사회 심리적 자원이 부족하여

문제 상황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최혜경·노치영, 1994) 지적되고 있어 부인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생활적응에서도 선행연구들(이정숙, 1990; 허영옥, 1993)은 결혼지속년수가 적은 젊은 부부일수록 남편의 협조와 애정이 많고 부부의 적응력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결혼기간이 길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다(오선주, 2002; 장문선·김영환, 2002). 역할갈등(김경신·김오남, 1996)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인이 지각한 갈등대처방법과 결혼생활적응

부부가 사용하는 갈등대처방법은 결혼생활에서 개인에게 그리고 관계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갈등은 개인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나 기능적인 갈등대처방법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 갈등상황일지라도 서로 적대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면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자기가 이해되고 가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Berko 등, 1997).

또한 결혼생활의 만족은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부부가 건설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파괴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와 낮은 부부를 비교하였을 때 갈등의 존재 여부는 차이가 없었고, 갈등대처 방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Yelsma, 1984; 이선희, 2000 재인용), 문제를 가진 상담부부들은 문제해결에 대한 전략으로 협동적인 방법보다는 회피적이거나 경쟁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유은희, 1994). 이와 유사하게, 문제해결방식을 회피, 통제, 조정의 세 측면으로 조사한 정경숙(1998)의 연구에서도 회피나 통제를 많이 사용할 때,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회피적 대처유형은 낮은 결혼만족과 관련되는(조유리·김경신, 2000; Bodenmann 등, 1998) 역기능적 유형으로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다. 반면 강학중과 유영주(2003)의 연구에서는 부부싸움 대처행동 중에서 감정적 협상과 인지적 협상은 기혼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문제나 갈등으로 부부가 싸움을 할 경우 협상적 태도로 임한다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부부 모두의 갈등대처유형을 조사하여 결혼만족도를 고찰한 연구에서(장문선·김영환, 2002)는 아내의 경우 갈등대처방식 중에서 분노억압, 소극적 철수, 억제, 수동공격과 같은 갈등회피 변인들이 결혼불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친화적 성향과 정서적인 민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감정적 변화에 보다 민감하고 자신의 감정을 보다 미묘하게 방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차원과 그에 대한 방어적 노력이 결혼생활에서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Heavy 등(1993)은 남편이 요구형이고 부인이 후퇴형인 것이 그 반대인 경우보다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Kurdek(1995)는 갈등해결유형을 대결형, 후퇴형, 순응형으로 나누어 2년에 걸친 각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의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부인의 결혼만족이 남편의 갈등해결방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남편의 결혼만족이 부인의 갈등해결방법에 의해 더욱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인의 갈등해결방법은 본인 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결혼만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각각 배우자의 지각 면에서 조사한 고현선과 지금수(1995)의 연구에서는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이성형일 때 부인의 결혼만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남편이 변덕형일 때 부인은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기혼여성 279명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기혼여성의 연령분포를 보면 만 30세부터 59세로 30대가 10.9%, 40대가 80.2%이며, 평균연령은 38.8세이다. 부인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36.5%, 고졸 34.7%, 전문대졸이 20.8%이며, 남편의 학력은 대졸 이상(51.3%) 및 전문대졸(19.3%)이 70%를 상회한다. 결혼기간은 5년 미만이 11.7%, 5-10년 사이가 41.6%, 10년 이상이 46.7%이다. 부인이 인지하는 자신의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층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하층 및 상층은 각각 24.6%와 16.6%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부인과 남편의 갈등대처방법

을 질문하는 문항, 부인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를 질문하는 문항 그리고 일반적 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갈등대처방법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 갈등대처방법은 자신의 욕구와 배우자의 욕구가 서로 상치될 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를 측정하였다. 조사 문항은 Berko 등(1997)이 제시한 척도를 토대로 하여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갈등대처방법은 갈등문제를 철회, 부정하거나 또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는 '회피형', 두 사람의 관심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기 위한 나누기 전략인 '타협형', 배우자의 소망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관심사를 덮어두는 '덮어주기형', 배우자의 욕구는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지배형', 그리고 두 사람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통합형'의 5유형으로 나뉘어진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부인이 사용하는 갈등대처방법($\alpha=.54$)과 부인이 지각하는 남편의 갈등대처방법($\alpha=.58$)의 Cronbach's α 는 신뢰할만한 수준(채서일 등, 1992)이었다.

결혼생활적응은 결혼생활에서 자신의 욕구를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충족시키는 과정을 말하며(유영주 등, 1996), 개인적 적응 지표로 스트레스를, 관계적 적응 지표로 결혼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우선 스트레스는 개인이 정상적·전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반응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제갈정(199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결혼생활에서의 불안, 두려움, 불편함, 정신적 긴장, 신체적 적응의 어려움 등을 알아보는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70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배우자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정도를 말하며, 선행연구(정경숙, 1998)를 참고로 하여 13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점수로 되어 있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PC-WIN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t 검증, 중다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인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인의 스트레스를 살펴 본 결과(표 1) 조사된 4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결혼기간을 제외한 부인의 학력, 남편의 학력 및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졸 이상의 부인들이 고졸 이하의 부인들보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편의 부인들보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편의 부인들보다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상류층인 부인들이 하류층 부인들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주부의 연령과 교육수준은 주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경제적 긴장이 적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제갈정(199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만 일치한다.

반면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4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는 것보다도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즉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스트레스와 달리 부인의 학력, 남편의 학력 및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강학중·유영주, 1993), 소득수준이 높을수록(정경숙, 1998)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되지 않는데, 이는 각 변인의 범주구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되나 추후 보다 정확한 고찰이 요구된다.

2. 부인과 남편의 갈등대처방법의 차이

부부갈등시 부인이 사용하는 대처방법과 남편이 사용하는 대처방법을 살펴볼 때,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인과 남편 모두 타협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덮어주기형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부인은 타협형 다음에 통합형, 지배형, 회피형의 순으로 갈등대처방법을 사용한다고 한 반면, 남편은 타협형 다음에 회피형, 지배형, 통합형의 순으로 갈등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각되고 있어 부부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각 대처유형별로 부부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타협형과 통합형은 부인이 남편보다 더 많이 사용한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인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구분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M (SD)	F	D	M (SD)	F	D
결혼기간	5년 이하	2.42 (.54)		3.49 (.72)		
	6년-15년	2.69 (.70)	1.91	3.39 (.75)	.51	
	16년 이상	2.66 (.78)		3.33 (.80)		
부인학력	고졸 이하	2.78 (.73)	7.24**	3.35 (.75)	.23	
	대졸 이상	2.55 (.68)		3.40 (.77)		
남편학력	고졸 이하	2.85 (.77)	9.65**	3.33 (.78)	.52	
	대졸 이상	2.56 (.67)		3.40 (.75)		
경제수준	하	2.85 (.75)		3.22 (.79)		
	중	2.59 (.69)	3.91*	3.41 (.77)	1.89	
	상	2.53 (.67)		3.47 (.65)		

*P<0.05 **P<0.01

D: Duncan's grouping

<표 2> 부인과 남편의 갈등대처방법

갈등대처방법	부인 M (SD)	남편 M (SD)	t
덮어주기형	2.90 (0.83)	3.09 (1.17)	-2.08*
지배형	3.29 (0.81)	3.24 (0.83)	.67
타협형	3.60 (0.66)	3.40 (0.78)	4.02***
통합형	3.44 (0.82)	3.17 (0.86)	4.05***
회피형	3.18 (0.79)	3.30 (1.31)	-1.42

*P<0.05 ***P<0.001

다고 지각하는 반면, 덮어주기형은 남편이 부인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각하였다. 회피형에서는 남편의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지배형 역시 부인과 남편이 사용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본 연구결과 중 통합형과 타협형은 선행연구(Berko 등, 1997) 지적과 일치하나, 덮어주기형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지배형과 회피형에 있어서도 남편이 부인보다 더 지배적(최혜경·노치영, 1994; Tannen, 1990)이고 더 회피적(Dominian, 1995)이라는 기존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3. 부부의 갈등대처방법이 부인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 부부의 갈등대처방법이 부인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인의 갈등대처유형, 남편의 갈등대처유형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모델 1에서 부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만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부인의 학력($\beta = -.12$)만이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인의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1의 설명력은 5.1%였다.

모델 2에서 부인의 갈등대처방법을 첨가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인학력의 영향력은 계속 남아있었다. 그리고 부인의 갈등대처방법 중 지배형($\beta = .16$)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부인이 지배적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갈등대처방법을 첨가함으로써 설명력은 4.5% 증가되어 모델 2의 총설명력은 9.6%였다.

모델 3에서 부인이 지각한 남편의 갈등대처방법을 첨가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유의한 변인이었던 부인학력이 무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인의 지배적인 갈등대처방법은 계속 유의한 변인($\beta = .16$)으로 남아있으며, 남편의 갈등대처방법 중 타협형($\beta = -.20$)이 유의한 변인으로 첨가되어 부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인의 지배적인 갈등대처방법과 남편의 타협적인 갈등대처방법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의 스트레스 정도는 자신이 지배형일수록 증가하며, 남편이 타협형이라고 인식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남편의 갈등대처방법을 첨가함으로써 설명력은 5.6% 증가하여 모델 3의 총 설명력은 15.2%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부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에는 남편의 갈등대처방법, 자신의 갈등대처방법,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순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인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인 자신의 갈등대처방법 보다는 남편이 사용하는 갈등대처방법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 부인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결혼기간	-.05	-.05	-.05	-.05	.07	-.06
	경제수준	-.47	-.04	-.56	-.05	-.57	-.06
	남편학력	-1.37	-.12	-1.15	-.10	-1.05	-.09
	부인학력	-1.68	-.12*	-1.76	-.12*	-1.31	-.09
부인 갈등대처 유형	덮어주기형		.21	.05	.17	.04	
	지배형		.68	.16**	.68	.16**	
	타협형		-.31	-.06	-.05	.01	
	통합형		-.58	-.14	-.40	-.10	
남편 갈등대처 유형	회피형		-.17	-.04	-.16	-.03	
	덮어주기형				.24	.08	
	지배형				.11	.03	
	타협형				-.88	-.20*	
R ²		.051		.096		.152	
	F값		3.54**		3.05**		3.23***

*P<0.05 **P<0.01 ***P<0.001

2) 부부의 갈등대처방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부인의 갈등대처방법, 남편의 갈등대처방법,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모델 1에서 부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만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설명량도 2.1%에 지나지 않았다.

모델 2에서 부인의 갈등대처방법을 첨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경제수준($\beta=.12$)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인의 갈등대처방법 중 지배형($\beta=-.23$), 통합형($\beta=.20$), 타협형($\beta=.14$)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부인이 갈등대처방법이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해주었다. 즉 부인이 지배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감소되는 반면, 타협형이나 통합형일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갈등대처방법을 첨가함으로써 설명력이 11.6% 증가하여 모델 2의 총설명력은 13.7%였다.

모델 3에서 부인이 지각한 남편의 갈등대처방법을 첨가한 결과 사회인구학적변인 중 유의한 변인이었던 경제수준과 부인의 타협형과 통합형은 무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인의 지배적($\beta=.16$)인 갈등대처방법은 계속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있었다. 남편의 갈등대처방법 중 지

배형($\beta=-.24$)과 타협형($\beta=.30$)이 유의한 변인으로 첨가되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자신이 지배형일수록 그리고 남편이 지배형으로 지각될수록 낮았으며, 반면 남편이 타협형으로 지각될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았다. 남편의 갈등대처방법을 첨가함으로써 설명력은 16.2% 증가하여 모델의 총 설명력은 29.9%였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협상적인 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강학중·유영주, 2003)와는 일치하나, 회피형의 대처유형은 역기능적으로 낮은 결혼만족과 관련된다고 지적한 연구결과들(장문선·김영환, 2002; 조유리·김경신, 2000; Bodenmann et al., 1998)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남편과 부인의 갈등대처방법 모두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부인 자신의 갈등대처방법보다 남편의 갈등대처방법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부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부인 자신의 것보다 남편의 갈등대처방법이 약간 더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며, 또한 부인의 지배적인 갈등대처방법이 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남편의 타협형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는데 이 같은 본 연구결과는 부인의 결혼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표 4>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결혼기간	-.02	.02	-.01	-.01	.02	.02
	경제수준	1.64	.11	1.72	.12*	.86	.06
	남편학력	.80	.07	.57	.05	.40	.03
	부인학력	-.58	-.06	-.38	-.04	-.16	-.01
부인 갈등대처 유형	앞어주기형			-.21	-.05	.02	.00
	지배형			-.93	-.23***	-.84	-.21***
	타협형			.74	.14*	.20	.04
	통합형			.86	.20**	.53	.13
남편 갈등대처 유형	회피형			.32	.07	.43	.10
	앞어주기형					.03	.01
	지배형					-.97	-.24***
	타협형					1.28	.30***
R ²	.021		.137		.299		
	F값		4.44***		7.56***		

*P<0.05 **P<0.01 ***P<0.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의 갈등관리방법과 부인의 결혼생활적응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부부가 사용하는 갈등대처방법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결혼생활에서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를 결정짓는 변인과 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기혼여성 2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인의 지각 면에서 부부갈등 시 주로 사용하는 대처방법을 살펴 본 결과 부인은 타협형, 통합형, 지배형, 회피형, 덮어주기형의 순으로, 남편은 타협형, 회피형, 지배형, 통합형, 덮어주기형의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 모두 갈등상황에서 타협적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덮어주기 방법을 가장 적게 사용함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부들은 부부갈등 시 서로 양보하고 절충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택하고, 반면 자신의 주장은 억제하고 배우자의 의견에만 따르는 소극적인 방법을 가장 적게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인과 남편의 갈등대처방법은 타협형, 통합형, 덮어주기 형에서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타협형과 통합형은 관련문헌들(Berko 등, 1997)의 지적대로 부인의 사용이 남편보다 더 많게 나타나,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부부갈등을 더 잘 인식하고, 부부간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적극 노력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덮어주기 유형은 예상과 달리 남성들의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은혜 베풀기' 또는 '자기억제' 전략으로 불리우는(Berko 등, 1997) 덮어주기 방법은 상대방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은 배려하지 않는 유형으로, 남편의 욕구와 요구에 순종해 온(Tannen, 1990) 전형적인 여성들의 대처방법으로 알려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그동안 일관되게 남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처방법으로 보고되어온 회피형(Dominian, 1995)과 지배형도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이 같은 결과는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부인의 지각 면에서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반응을 조사했을 경우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개인의 스트레스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자기보고에 의한 평가보다는 부인의 편에서 어떻게 느껴지고 경험되고, 지각되는가의 주관적인 평가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배우자가 부인을 진실하게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의사소통기술의 부재 등으로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였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채규만 등, 1997), 그 결과 실제와 다르게 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이러한 조사방법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사회변화에 따라 실제로 달라진 것인지 추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부인의 결혼생활 적응 지표로 조사한 부인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남편의 갈등대처방법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그 다음이 자신의 갈등대처방법,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순이었다. 자신의 갈등대처방법 보다는 배우자의 갈등대처방법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에서는, 특히 갈등상황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자신이 이해받고 배려 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한편 부부의 갈등대처방법이 부인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비교해 볼 때 부부의 갈등대처방법은 스트레스보다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에 미치는 갈등대처방법의 영향력은 10.1%이지만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27.8%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는 일부 사회인구학적 변인(부인 학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결혼만족도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볼 때 갈등대처방법은 개인적 측면보다는 관계적 측면에 더 중요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부인 자신이 사용하는 갈등대처방법 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친 대처방법은 지배형이었으며, 남편이 사용하는 갈등대처방법 가운데는 타협형(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과 지배형(결혼만족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즉 자신이 지배적일수록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결혼만족도는 감소하며, 또한 남편이 지배적일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반면 남편이 타협형일 때는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결혼만족도는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결혼생활에서 부인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는 부부가 서로 얼마나 자신만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배려 받고 있다고 느껴지느냐에 따라 긍정적이 되기도, 부정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문선과 김영환(2002)의 지적대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친화적 성향과 정서적인 민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감정적 변화에 보다 민감하고 자신의 감정을 보다 미묘하게 방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차원과 그에 대한 방어적 노력이 결혼생활에서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갈등이 개인의 성장 및 관계를 견고히 하는 기능적 요소로 작용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배려와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이루

어겨야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다섯째,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부부의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없다. 갈등에 있는 부부들은 결혼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건강하게,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노력에 달려있다. 남성과 여성은 사회화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 시 다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접근하는 경향이므로 잘못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Tannen, 1990). 따라서 자신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아울러 이러한 태도를 상대방에게 명료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갖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으로 결혼기간, 부인 및 남편의 학력, 경제수준 등 4개 변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회귀분석에서는 그 어떤 변인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표집의 영향인지 또는 실제로 유의한 변인이 아닌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인이 지각하는 맥락에서 배우자의 대처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인의 평가에 의해 남편의 갈등대처방법을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배우자가 평가하는 갈등대처방법과 본인 자신이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갈등대처방법간에는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심도있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고찰된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 이것은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변인의 범주구분에 의한 차이일 수도 있으며, 사용된 척도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앞으로 보다 정교화된 척도에 의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주제어 : 갈등대처방법,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참 고 문 헌

강학중, 유영주 (2003) 한국 도시부부의 부부싸움 및 부부싸움 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도

권 거주 기혼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61-84.

고현선, 지금수 (1995) 부부의 갈등대처 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71-83.

김명준, 전인식, 백연정 (2003) 성격유형과 우리의 삶 CD. 서울: 한국 심리검사연구소.

김양희 (1993) 한국가족의 갈등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오선주 (2002)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남편과 부인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201-215.

유영주, 김경신, 김순옥 (1996)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유은희 (1994) 상담가족의 부부간 상호 작용. 한국도시가족의 부부문제 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 1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연구보고서 제1권.

이미영 (1994) 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 갈등문제 및 대응행동분석: 전화 상담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선희 (2000) 부부의 MBTI 성격유형의 유사성과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숙 (1990) 기혼여교사의 가정생활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변인분석.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연 (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 관련 변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1), 105-117.

장문선, 김영환 (2002) 부부의사소통패턴과 특징적 갈등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31-347.

정경숙 (1998)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부부갈등 해결방식과 MBTI 성격유형과의 상관연구: 중졸학력 주부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갈정 (1993) 도시 중산층 주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유리, 김경신 (2000) 부부의 갈등대처 행동과 결혼만족도: 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채규만, 최규련, 송정아, 홍숙자 (1997) 부부가 함께 말하기와 듣기. 서울: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채서일, 김범중, 이성근 (1992)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학현사.

최정혜 (2002)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및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49-60.

최혜경, 노치영 (1994)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2-272.

통계청 (2003) 인구통계 통계연보(혼인·이혼 편).

- 허영옥 (1993)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여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ucom, DH, Epstein, N, Rankin, LA, Burnett, C K (1996) Assessing relationship standards: The inventory of specific relationship standar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72-88
- Berg-Cross, L (1997) *Couples Therapy*, Thousand Oaks: Sage.
- Berko, RM, Rosenfeld, LB, Samovar, LA (1997) *Connecting: A Culture-Sensitive Approach t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2nd).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Bodenmann, G, Kaiser, A, Hahlweg, K, Fehm-Wolfsdofr, GF (1998) Communication patterns during marital conflict: A cross-cultural replication, *Personal Relationships*, 5, 343-356.
- Dominian, J (1995) *Marriage: The Definitive Guide to What Makes a Marriage Work*. London : Heinemann.
- Gottman, JM (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Erlbaum.
- Heavy, CL, Layne, C,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16-27.
- Klinetob, NA, Smith, DA (1996)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in marital interaction: Tests of interspousal contingency and gender role hypothe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45-957.
- Kurdek, LA (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53-164.
- Noller, P, Fitzpatrick, MA (1993) *Communic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New Jersey: Prentice-Hall.
- Retzinger. SM (1991) *Violent Emotions*. London : Sage.
- Tannen, D (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 Ballantine.
- Thompson, L, Walker, AJ (1991) Gender in families. In A. Booth(Ed.),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Vuchinich, S (1987) Starting and stopping spontaneous family confli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591-601.

(2006. 01. 11 접수; 2006. 06. 12 채택)